

로아 바스토스의 『사람의 아들 Hijo de hombre』과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비교 연구*

— 구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

김 창 민
단독/서울대학교

Kim, Chang-Min(2008), Estudio comparativo de *Hijo de hombre*(1960) de Augusto Roa Bastos e *Hijo de hombre*(1979) de Mun-Yol Lee: En torno al tema de la salvación, *Revista Iberoamericana*, 19-1, pp. 59-82.

Este estudio tiene como objetivo comparar dos novelas homónimas de Paraguay y Corea. Además del título idéntico, tienen varios aspectos comunes: el tema, el fondo y la estructura. A pesar de coincidir en dichos aspectos, son muy diferentes en cuanto al entendimiento del Dios cristiano y de la salvación.

La obra de Roa Bastos insinúa que la salvación del ser humano podría realizarse en este mundo a través del comportamiento humanitario y sacrificado del ser humano, como el que se manifiesta en los personajes de Gaspar Mora, Casiano Jara y Cristóbal Jara. Por eso, éste último llega a decir: “Lo que no puede hacer el hombre, nadie más puede hacer.” Así, el camino de la salvación se presenta más abierto. La obra de Lee, una novela policiaca, comprende mayormente los vagabundeos y razonamientos teológicos de Min (estudiante rebelde de teología), de Yio (seguidor de Min) y de Ahas Pertz (en la escritura de Min) sobre el ‘Salvador’. Al final, Min regresa al Dios cristiano del que se había apartado, y Yio, al darse cuenta de la traición de su maestro, lo mata y se suicida. En la novela coreana, nunca se muestra suficiente confianza en la capacidad del pueblo de salvarse a sí mismo, ni se piensa en las virtudes divinas del ser humano que, según Jesús, Dios le ha otorgado desde siempre.

[Augusto Roa Bastos, *Hijo de hombre*, salvación, Mun-Yol Lee;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토스, *사람의 아들*, 구원, 이문열]

* 이 논문은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한국사업(B00024)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서론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지전능한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라면 왜 수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불쌍한 인간들의 절규를 외면하였나?” “왜 이 인간 세상의 부조리와 비극은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모르는가?” 기독교 신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한 의문은 오랜 세월 동안 문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 중의 하나이다. 1719년 영국 작가 다니엘 디포우가 발표한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하인이 된 원주민 프라이데이는 주인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럼, 하나님은 악마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세다면 왜 하나님은 악마가 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않나요?”¹⁾ 이 ‘기독교 신의 모순’은 19세기 후반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한 이후 더욱 활발하게 실존주의 문학의 주제이자 창작의 동기가 되어왔다. 20세기를 통해서도 이 ‘신의 모순’ 문제는 제국주의와 독재, 인권탄압과 기아로 얼룩진 ‘현실의 모순’을 살아가는 작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중남미 역사에 있어 기독교(정확히 말해서 가톨릭)의 역할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절대적이었다. 신대륙 정복과 함께 전파된 기독교는 500년간 라틴아메리카인의 삶을 지배하였다. 출생에서 죽음까지 라틴아메리카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례는 기독교 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90%가까이가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여긴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톨릭은 지배적 종교일 뿐 아니라 문화의 주된 구성요소이다. 또한 그 들의 신앙은 자신이 속하는 신앙집단에는 무관심한, 개인적 차원의 신앙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신자들 뿐 아니라 성직자들과의 관계도 아주 느슨하고 추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가톨릭교회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식인들은 가톨릭교회를 보수적이고 특권적인 세력의 이해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보았던 것이다(Arturo A. Fox, 1998:147). 특히, 19세기 독립이후 성직자들은 스페인 식민통치세력과 동일시되었고, 교회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1) 다니엘 디포. 2007. 『로빈슨 크루소』. 김병익 역. 서울: 문학세계사. 253. 이 작품은 무력과 기독교를 이용한 전형적인 식민지 지배 방법을 드러내고 있으며, 영국이 식민지를 확장하던 시대에 살았던 지식인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작품이라 하겠다.

때문에 지식인들의 표적이 되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가톨릭에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톨릭은 여전히 신생독립국들의 공식 종교로 채택되었고,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정치적 독립이후에도 정신적 독립은 이룩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1960년 파라과이의 소설가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토스는 망명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람의 아들 Hijo de hombre』을 출간했다. 1812년부터 1840년까지 파라과이를 철권통치한 호세 가스파르 로드리게스 데 프란시아 대통령 시대부터 1947년 파라과이 혁명전야까지 그 나라의 암울한 현실과 민중들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작품은 공식 역사나 연대기와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파라과이의 내적 역사(intrahistoria)²⁾를 생생하게 그리면서, 동시에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 ‘부조리한 인간 현실과 구원’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다. 작가 자신도 혁명에 가담했다가 1947년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너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자 50여만 명에 이르는 동포들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망명을 떠나 1976까지 조국 땅을 밟지 못했다.

1973년 이문열은 중편 『사람의 아들』을 발표한다. 그리고 1979년 장편 『사람의 아들』이 출간되어 그 해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다. 1973년 당시는 박정희의 유신독재정권이 민중의 숨통을 죄고 있던 암울한 시기였다. 물론 이 소설도 부조리한 현실과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사람의 아들’이자 ‘신의 아들’인 예수가 고통 받고 있는 인간을 외면하는 현실에 회의를 드러내면서 진정한 구원자를 찾아 나선다.

거의 문화적인 교류가 없는 두 나라에서 이 처럼 같은 제목의 두 소설이 거의 유사한 정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³⁾ 또한 두 소설은 기법

2) Trinidad Barrera. 1990. “Augusto Roa Bastos: la ejemplaridad de la escritura.” *Augusto Roa Bastos, Premio de Literatura en la lengua castellana ‘Miguel de Cervantes’*, 1989. Barcelona: Editorial Anthropos. 28.

3) 이 작품의 제사(題辭)에 인용된 구약의 에제키엘서 14장 8절에 나오는 “[...]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번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람의 아들’은 계시를 받고 있는 에제키엘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태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가 ‘신성’과 동시에 ‘인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말임과 동시에 모든 인간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신성이 깃들여 있음을 암시하는 말로

에 있어서도 액자소설 기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두 소설은 제목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소설 탄생의 시대적 배경, 기법, 주제 등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이처럼 동일한 주제와 외형적 조건을 가진 이 두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소설의 주제와 작가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런 비교 연구를 통해 두 소설의 성격이 보다 더 잘 드러나고, 작품의 의미 또한 더 심도있게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오늘날 한국에서는 군사독제도 지나갔고 민주주의가 많이 신장되었지만,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시대에 살면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부조리한 사회 현상들도 여전하다. 물론 파라과이 민중들의 삶은 우리보다 더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에서 위안을 찾고 구원을 갈망한다. 그리고 종교적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다. 이 연구는 이 구원의 문제를 좀 더 깊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 시대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소설의 줄거리와 기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주요 인물들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차이점과 공통점을 부각시키고, 마지막으로 인물들의 의미와 작품의 메시지를 파악해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II. 본론

1. 두 작품의 줄거리와 서술 기법

1)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고시공부와 소설쓰기를 한 적이 있는 D경찰서의 남 경사는 기도원 근처

사용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신학적 해석들이 가능하다.

에서 발생한 민요섭의 피살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민요섭이 외국인 선교사의 양자로 자랐으며 뛰어난 성적의 신학도였다가 이단적 행동으로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 민요섭은 명문 고교 우등생이던 조동팔의 집에 기거하며 동팔을 자신의 실천적 종교 사상에 매료시킨다. 마침내 동팔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살인도 마다않는 극단적 행동주의자가 된다. 한편, 그러한 내용을 탐문해 가던 남 경사는 민요섭이 쓴 소설 형식의 일기를 통하여 민요섭과 조동팔이 추구하던 기독교 부정의 신념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민요섭의 글에서 아하스 페르츠는 예수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부모에 의해 훌륭한 랍비(율법사)가 되도록 양육된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회의 끝에 기독교적 신념을 포기하고 긴 순례의 길을 떠난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신(神)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 그 후 야훼가 인간을 비참한 삶에서 구해주지 않고, 자유와 죄의식을 심어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와 여러 차례 논쟁한다. 그리고 유다를 부추겨 예수를 고발하게 하고 예수의 최후를 지켜보다가 시공을 초월한 방랑의 길을 떠난다.

남 경사는 끈질긴 수사 끝에 조동팔의 거처를 알아내고, 민요섭을 죽이게 된 배경과 경위를 듣는다. 조동팔은 민요섭의 기독교 회귀로 자신의 실천력이 희석되는 것을 두려워했노라고 말한다. 결국,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민요섭을 죽이게 되었다고 자백하며 음독자살한다.

2)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또스의 『사람의 아들』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끄리스또발 하라의 부모인 까시아노 하라는 1912년 농민 반란에 참가했다가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따꾸루 뿌꾸 농장에 일꾼으로 간다. 막상 농장생활을 시작해 보니, 노예보다 더 혹사당할 뿐 아니라, 감독들이 자기 부인인 나띠비닷을 농락하려하자 갓 태어난 아들 끄리스또발을 데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셀바를 가로지르는 탈출을 감행한다. 천우신조로 소달구지를 끄는 노인을 만나 사뿐까이 근처까지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사뿐까이로 가서 농민 반란이 실패한 후 들판에 버려져 있던 객차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또 다른 주인공인 미겔 베라는 사관학교에 입학했다가 음모에 가담한 죄로 사뽀까이로 유배되어 트럭 운전수인 꼬리스또발의 안내로 실베스트레 아끼노가 이끄는 저항단체를 만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 하지만 미겔 베라는 취중에 음모를 발설하게 되고 그 집단은 체포되어 감옥으로 보내지는데, 꼬리스또발 하라는 탈출에 성공해 마을의 공동묘지기인 마리아 레갈라다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그 후 그는 차꼬 전쟁에 징집된다.

이후 미겔 베라는 사뽀까이 마을의 반란 집단에 가담한 죄로 차꼬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에르모사 계곡의 군사시설로 좌천된다. 차꼬전쟁이 터지자 보게론 진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선으로 나간다. 거기서 갈증과 일사병으로 거의 죽어가려는 순간 자신에게 물을 수송해가는 꼬리스또발의 차량이 나타나자 환각 상태에서 사격을 해서 꼬리스또발을 죽인다.

차꼬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이따빠 마을로 돌아오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꿈은 아무 것도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치유하기 힘든 전쟁의 상처만 마을 주민들을 괴롭힌다. 전쟁 중 지방 관료들은 남아 있는 여자들을 농락하였고, 전쟁에서 돌아온 남자들은 그들에게 피의 복수를 한다. 전쟁영웅으로 훈장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꼬리산또 빌랄바는 자기 가정이 파탄 난 것을 알고는 전쟁 망상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따빠 마을의 읍장을 맡게 된 미겔 베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실존적 고뇌에 빠진다. 결국 미겔 베라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를 의문의 죽음을 맞으면서 작품은 끝난다.

3) 서술 기법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또스의 『사람의 아들』⁴⁾ 1, 3, 5, 7, 10장은 미겔 베라를 화자로 등장시켜 이따빠 마을을 주된 배경으로 전개되고, 2, 4, 6, 8장은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까시아노 하라와 꼬리스또발 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의 마지막에는 여의사 로사 몬존의 편지가 등장한다. 그 편지 내용에는 로사 몬존 자신이 베라가 쓴 기록을 “한 자

4) 지금부터 소설에서 인용되는 내용은 Augusto Roa Bastos. 1994. *Hijo de hombre*(Madrid: Anaya & Mario Muchnik)에서 인용한 것이다.

도 틀리지 않게 필사했다”고 밝힌다.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여하려는 소설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독자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로사 몬존의 편지라는 가느다란 테두리의 액자 안에 들어가게 된다.⁵⁾

한편,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은 바깥이야기로 남경사가 민요섭이 살해당한 사건을 맡아 범인을 찾는 이야기이고, 안 이야기는 민요섭이 쓴 아하스 페르츠의 이야기이다. 결국 두 소설은 액자 구조를 통해 편집자(작가)는 중심 이야기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는 동일한 소설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소설에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이문열의 소설은 예수와 아하스 페르츠의 대립적 삶과 행동을 부각시키면서 ‘신의 모순’과 ‘인간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이면서 전면적으로 다룬다. 더구나 민요섭은 우수한 신학도였다. 따라서 소설은 전반적으로 지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남경사조차도 민요섭의 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⁶⁾

반대로 로아 바스토스의 『사람의 아들』에서는 ‘신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예수에 의한 구원’이나 ‘인간에 의한 구원’은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주인공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암시될 뿐이다. 더구나 구원의 문제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거리가 있다. 따라서 두 소설 사이에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더구나, 로아 바스토스의 작품에서는 지적인 화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품 마지막에 로사 몬존의 편지를 통해 지금까지 독자가 읽은 소설 내용을 쓴 이를 미겔 베라로 만들고 작가 자신은 단순한 편집자

5) 물론 2, 4, 6, 8장의 전시적 시점의 3인칭 화자는 미겔 베라일 수도 있고, 베라의 기록과 로사 몬존의 편지를 편집한 편집자일 수도 있겠다. Gladys Vila Barnes의 연구에 따르면 1인칭, 3인칭 화자 모두 미겔 베라인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1장과 9장은 두 시점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지적한다. 행동하는 민중을 그리는 시선과 갈등하는 한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선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서술 기법은 파라과이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인 장치라고 주장한다. Gladys Vila Barnes. 1984. *Significado y coherencia del universo narrativo de Augusto Roa Bastos*. Madrid: Editorial Orígenes. 77-81.

6) 이문열. 1987. 『사람의 아들』. 서울: 민음사. 44. 앞으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인용은 쪽수만 표시한다.

의 위치로 몰려선다. 이것은 마치 이 작품이 지식인이 아닌 민중에 의해 쓰인 것이며, 공식 역사가 아닌 민중들의 삶을 증거하는 역사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효과를 주는 장치라고 여겨진다. 특히 1장에 등장하는 마까리오 영감은 이따삐 마을 주민들에겐 기억의 자료실이다(Roa Bastos, 1994: 409). 마까리오 영감은 독재자 프란시아 시대부터 파라과이의 역사와 이따삐 마을의 역사, 가스빠르 모라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히 기억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기회가 날 때마다 들려준다. 그의 이야기는 파라과이 문화의 두 축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는 민중의 구전 문학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⁷⁾ 마까리오 영감의 구술을 통해서 가스빠르 모라의 이야기는 민중의 집단적 기억으로 확산되고, 신화나 전설의 영역으로 옮겨간다.

2. 두 소설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요소

앞의 줄거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문열의 작품은 전체가 ‘기독교 신의 모순’에 대한 지적이고, 새로운 신, ‘지혜로운 신’을 찾아나서는 이야기다. 민요섭이 신학교를 그만 두는 과정과 아하스 페르츠에 대한 기록, 조동팔의 행동도 모두 기독교 신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가 신학적 토론의 장이자, 명백한 ‘기독교 소설’이다.

반면, 로아 바스토스 소설은 파라과이 근대사에 점철된 혁명과 전쟁을 그리면서 민중의 저항의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요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소설의 제목에서부터 암시되듯 기독교적 요소는 작품 곳곳에 베어 들어가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에피소드를 성서에 등장하는 그것들과 대응이 되도록 치밀하게 구성해 놓았다.

주인공 끄리스토팔 하라(끼리또: 파라니어 차음)는 신의 아들인 예수와 대응되는 사람의 아들로, 가스빠르 모라는 예수나 세례 요한, 마리아 로사와

7) 특히 작품의 첫 장에서 마까리오 영감의 구술 이야기를 배치한 것은 나름대로 파라과이에서 구전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개정판 서문에서 작가는 파라과이 대중이 사용하는 파라니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고 있다. 작가는 파라과이 문학은 대중적 구전문학의 전통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Augusto Roa Bastos, 1990: 67).

살루이는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리고 있다. 까시아노 하라와 나띠비닷⁸⁾ 부부는 성가족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4장에서 까시아노 하라 가족이 농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는 성가족이 이집트로 탈출한 것을 떠올리고, 베라 중위의 배신은 유다의 배신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에서 그리스도발 하라가 죽음을 뻔히 예감하고도 전선에 있는 동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탱크 차를 몰고 가고, 결국 아군인 베라 중위의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것을 떠올린다.

특히 가스빠르 모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1장은 제목부터가 이 소설 전체의 제목과 동일하고, 이 작품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1장 전체의 종교적 요소와 그에 배어 있는 작가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작품의 처음에 등장하는 작은 이따빠 마을의 언덕 정상에는 검은 십자가의 예수 상이 초라한 천막의 보호 아래 서 있다. 그 예수상은 바로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다가 문둥병이 걸리자 스스로 산으로 들어가 살다가 죽은 가스빠르 모라가 조각한 것이었다. 가스빠르 모라는 이따빠 마을에서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악기를 제작해주고 받은 돈 중에서 재료와 공구를 살 돈만 남기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늘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의복과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면 음악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그가 산 속에서 혼자 살면서 조각해 오두막에 남긴 예수상은 거의 해골에 가까운 그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마까리오 영감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마을로 가져와 성당 안으로 모시려고 하였으나 신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조각상을 만든 가스빠르 모라가 문둥병 환자였고, 이단자이기 때문이라고 반대했다. “단 한 번도 성당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순결하지 못한 인간이란 말입니다.”(Roa Bastos, 1994: 44)라고 평가한다. 마까리오 영감은

8) 그리스도발은 그리스도를, 나띠비닷 Natividad은 탄생을 의미한다.

자기 조카인 가스빠르 모라가 지녔던 영혼의 순수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신부는 종지기를 시켜 몰래 그 조각상을 불태우라고 시킨다. 하지만 그 종지기는 실패하고 죄책감 속에서 자살한다. 마치 배신자 유다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다.

삼 일 밤낮을 예수 상 앞에서 궁리를 하던 사람들은 그 이따뻔 마을 언덕이 갈보리 언덕을 닮았다는 생각을 해내고는 그 곳에 그 조각상을 모시기로 결정한다. 마치 예수가 죽은 지 삼 일만에 부활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전개이다. 교회 측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그 조각상을 축성하는 자리에서 신부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이 이따뻔 언덕은 이 순간부터 ‘뚜빠 라뻔’라고 불릴 겁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름 아닌 겸허와 축복이 깃든 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설교한다. 하지만 마카리오 영감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름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문둥병에 걸린 예수상이 서 있는 이 언덕은 ‘꾸임바에 라뻔’라고 불렸어야 했는데…”(Roa Bastos, 1994: 52). ‘꾸임바에 라뻔’은 ‘인간의 길’이라는 뜻이다.⁹⁾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연상시키는 마리아 로사는 낮에는 광주리장사를 하고 밤에는 자기 오두막에서 외지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인데, 가스빠르 모라를 사모하고 지극히 따르는 나머지 마을 아낙네들이 질투하는 여성이다. 가스빠르 모라가 문둥병이 걸려 산으로 잠적하자 그에게 물과 음식을 날라다 주었다. 나중에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낳아 지극정성으로 키운다. 그리고 가스빠르가 죽은 후 그의 조각상이 마을로 오는 과정에서 그 조각상에 물을 주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조각상

9) 울프 루스티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반교권주의’ 사고는 페루의 인디오 역사가인 구아만 뽀마 데 아얄라(Guaman Poma de Ayala)가 식민지배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스페인어로 쓴 1200쪽 분량의 방대한 저서인, 『새로운 연대기와 좋은 정부 Nueva Crónica y Buen Gobierno』(1615)에 역력히 드러난다. 특히 이 연대기엔 399개의 삽화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는 흉측한 야수들에 의해 감금당한 불쌍한 인디오의 모습이 담긴 삽화가 있다. 이 그림에서 야수들은 스페인의 식민통치세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원주민 부락에서 선교하는 신부도 포함된다. 더구나 이 그림에는 ‘가엾은 예수그리스도(Pobre de Jesucristo)’라는 문구가 있다. 인디오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제도화된 가톨릭교회를 상징하는 사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부리’와 동일시하는 작가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Wolf Lustig. “Cristo y los hombres en la novela hispanoamericana del siglo XX.” 2008년 2월 26일에 검색. <http://www.romanistik.uni-mainz.de/hisp/roa/Asuncion.htm>

에 붙여주었다(Roa Bastos, 1994: 50). 마리아 로사와 비슷한 인물로 살루이가 있다. 그녀는 창녀였는데 끄리스토팔 하라를 좋아하게 되어 그와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전선에 물을 나르는 임무에 동참한다.

이처럼 로아 바스토스의 작품은 파라과이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도 작품의 제목, 에피소드, 등장인물 등에서 기독교 성서를 연상시키는 요소를 많이 표현하고 있다. 특히 소설의 첫 째 장은 제목에서부터 인물과 에피소드 등에 이르기까지 성서적 요소가 집중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구성은 이 작품을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는 두 작품의 주요 인물들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서 인물들의 특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인물 분석과 비교

1) 민요섭(아하스 페르츠) & 미겔 베라 & 의사 그랑고

민요섭은 실천철학에 경도된 인물이었다. 그의 신학대학 스승에 따르면 그는 “사탄을 지혜의 영(靈) 또는 신의 또 다른 속성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28). 그는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쓴 일기에서 “부유한 자, 힘센 자, 권세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무(無)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는 전부인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전부였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찌하여 무(無)인가?”(46)라고 자문하며 회의한다.

소설 속에서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은 민요섭이라는 신학도만이 가진 것은 아니었다. 바로 남경사 자신도 “[...] 언제부터 인가 그것들이(교회당 침탑 위의 흰 십자가) 상징하고 있는 세계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인간의 탐욕과 위선으로 부패하고 오욕된 의식(儀式)과 제도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31). 이를 통해 제도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일반화된 회의를 작품은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민요섭의 비판적 태도는 가스파르 모라, 마까리오 영감에게 동일하게 발견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스파르 모

라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며, 그의 조각상을 교회로 들여 넣으려할 때 신부가 보여준 태도와 마까리오 영감의 저항에서 기존의 제도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두 작품이 서로 다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문열의 작품은 예수 시대에 기독교를 부정했던 아하스 페르츠의 이야기를 현대 사회에서 반기독교적 이념과 행동을 보이는 민요섭과 조동팔의 이야기로 에워 산 액자 구조의 소설이다. 아하스 페르츠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외경(外經)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인물로서, 작가는 이 전설상의 인물을 소설 속에서 재창조한다. 아하스 페르츠는 민요섭이 자신의 정신적 방황을 대신 형상화한 인물이다.

아하스 페르츠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돌아가던 동방박사들이 하늘에서 이상한 검붉은 별을 목격하던 날, 벨엘 부근의 한 삼마이 학과 율법사의 아들로 태어났다(47). “야훼의 아들이 이집트의 헬리오 폴리스에서 궁핍하게 자라는 동안 아하스 페르츠는 작으나 아담한 부친의 저택에서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48).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 달랐던 그는 어느 날 테도스라는 ‘거짓 구세주’에 이끌려 빈민가를 보면서 “물질의 결핍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54) 알게 되었다. 그리고 테도스는 “말씀은 주린 자를 채우지도 못했고, 햇빛은 자를 입히지도 못했다. 사람을 죄와 질병에서 보호하지도 못했으며, 거기서 온 비참과 불행에는 더욱 무력했다”고 아하스 페르츠에게 주장한다. 그 후 아하스 페르츠는 신앙에 대한 회의와 빈민 속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와 징벌의 모순에 대해서 항변하고 집을 떠나 새로운 신을 찾아 나선다.

그것은 (선에 대한 보상과 악에 대한 징벌을 약속하신 것) 자유가 아니라 그 분의 무책임한 방임입니다. 두 개의 상반된 의지 틈에서 인간들이 피흘리며 투쟁할 때, 그리고 끝내 패배하여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갈 때조차도 침묵하고 계시던 그분에게 그 결과인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고 벌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을 다만 냉혹한 형리(刑吏)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70)

아하스 페르츠의 이야기는, 신의 은총보다는 현재의 자유와 정의의 실현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며, 신이 모순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더 이상 인간에게 간섭하거나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테도스는 아훼의 ‘말씀’이 인간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아하스 페르츠에게 메시아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걸 위해서 오는 그는 반드시 세 개의 열쇠를 가지고 와야 한다. 첫째는 우리의 가없는 육신을 주름에서 구해 줄 빵이며, 둘째는 우리의 나약한 정신을 죄악에서 지켜 줄 기적이며, 셋째는 맹목과 잔혹의 역사에 의(義)와 사랑의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지상의 권세이다. 이 셋 중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그는 결코 우리들의 메시아일 수 없다. 꼭 기억해라. 빵과 기적과 권세이다. 말씀의 육화(肉化)는 말씀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56).

그러면서도 아하스 페르츠는 신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게 될 고독과 허무가 두려운 것이다(180). 이처럼 민요섭과 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스 페르츠의 태도는 애매하다. 말씀만을 앞세우는 신을 부정하면서도 신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간의 삶이 고독하고 허무할까봐 두려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요섭이 기존 교회와 결별할 당시 회구했던 신은 아하스 페르츠가 바랐던 신이며,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신이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세상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신이었다. 결국 민요섭은 ‘이성의 신’, ‘지혜의 신’을 찾아 해마다 그러한 신이 지닌 한계들을 인식하고는, 마침내 조동팔과 결별한 후 아훼의 말씀으로 귀의를 하고 만다.

선악의 관념이나 가치 판단에서 유리된 행위, 정벌 없는 악(惡)과 보상 없는 선(善)도 마찬가지로 공허하다. [...] 불합리하더라도 구원과 용서는 끝까지 하늘에 맡겨 두어야 했다. [...] 우리는 설익은 지식과

애매한 관념으로 가장 조악한 형태의 무신론(無神論)을 읽었을 뿐... 우리가 어김없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은 기껏해야 저 혁명의 세기에 광기처럼 나타났다가 조롱 속에 사라진 이성신(理性神)이거나 저급하고 조잡한 윤리의 신격화(神格化)에 지나지 않았다(265-266).

로아 바스또스의 작품에서 민요섭처럼 정신적 방황과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입체적 인물로는 미겔 베라를 꼽을 수 있다.¹⁰⁾ 그는 주된 화자로서 내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순수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아순시온으로 유학을 가면서 사뿐akai 역에서 자기와 동행하던 여성 다미아나의 젖을 몰래 먹게 되면서 성을 알게 되고, 순수성을 잃게 되면서 성과 관련된 죄의식을 갖게 된다.¹¹⁾ 하지만 그는 권력의 남용을 깨닫고 억압받는 자들 편에 서는 정의감이 있는 인물이기에 반란군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한다. 그는 관망과 행동 사이에서 늘 망설이는 인물이지만, 그리스도발 하라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그는 해방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유다의 길을 간다. 취중에 혁명모의를 발설하는 배신자가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발 하라의 희생으로 차꼬전쟁에서 살아 돌아와 읍장이 된 뒤 그는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글쓰기를 통해서 속죄의 길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나의 증언은 어중간 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기억들을 적는 순간 나의 어렸을 적의 순진함과 놀라움에 나의 인간으로서의 배신과 망각, 내 삶은 반복적인 죽음들이 섞이는 것을 느낀다. 나는 이런 기억들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속죄하고 있는 것

10) 그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행동하는 인물이지 심리적 갈등을 거쳐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은 없다. 까르멘 데 모라에 의하면 인물들의 심리적 갈등과 발전을 제거한 것은 집단적인 인물을 만들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며, 그것은 20세기 중남미 소설을 특징짓는 것이라고 한다(Carmen de Mora, 1994: 412).

11) 까르멘 데 모라는 미겔 베라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아이의 젖을 훔쳐 먹은 곳이 농민 혁명과 관련되어 사회적 상징성이 강한 사뿐akai 역에서 다는 것은 미겔 베라라는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석한다(Ibid., 411).

인지도 모른다(Roa Bastos, 1994: 24).

그의 글이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를 치료해 준 경험이 있던 로사 몬존은 미겔 베라의 원고를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로사 몬존은 미겔 베라가 죽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나라는 압제자와 피압제자로 나뉘어 다시 내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를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출판하라고 보냈지요. 이따따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는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뒤로 물러서지도, 실수를 저지르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권력에 굴복하지도 않을 거구요 [...]12)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겔 베라는 이따따 마을의 읍장으로서, 차꼬 전쟁에서 귀향한 후에도 전쟁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꼬리산또와 그의 아들 꾸추이를 걱정하면서 글을 쓴다. 비록 미겔 베라가 과거에 실수로 민중을 배신한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차꼬 전쟁이 끝나고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배자라기보다는 민중의 일원임을 보여준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쩌든 권총에 의해 미겔 베라가 죽기 바로 직전에 쓴 원고에는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그가 지닌 실존적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

나는 그들만을(꼬리산또와 꾸추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 인간으로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을 생각한다. 마치 고통 받고 박해받는 인간은 항상,

12)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토스, 1994. 『사람의 아들』, 남진희 역, 서울: 동승동, 401. 역자는 번역의 원본으로, Lector 출판사에서 1983년에 출판한 책을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을 위한 텍스트로 사용한 판본도 개정판이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이 단락은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Seix Barral 출판사에서 1984년에 나온 스페인어 판본은 개정판에 관한 작가의 서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판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로사 몬존의 편지가 더 자세하고 길게 되어 있다. 초판본에는 미겔 베라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어디서나 숙명적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인 듯하다. 인간에 의해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해괴망측한 몰상식에 뭔가 출구가 있어야 한다. 왜냐면, 만약 출구가 없다면 인간이란 종은 영원히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지옥이고,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Roa Bastos, 1994: 366).

이처럼 숙명처럼 고통 받고 박해 받는 인간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미겔 베라의 고뇌는 민요섭과 아하스 페르츠의 고뇌와 다르지 않다. 신에 대한 믿음도, 인간에 대한 믿음도 확고하지 못한 인물들인 것이다.

‘의사 그링고’는 ‘목재와 살’(Madera y carne)이라는 제목의 제 2 장에 나오는 인물이다. 비록 이 인물의 등장은 헬리 헤성이 나타난 해에 생긴 사뭇 가까이 마을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구실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작품 전체의 주제와 관련하여 바라볼 때, 이 인물이 갖는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

‘의사 그링고’는 알렉시스 두브로프스키라는 이름의 러시아 의사로 1912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농민 반란이 진압되고 난지 몇 년 뒤에 그 마을에 나타났다. 시간적으로 그의 이야기는 그가 그 마을에서 사라진지 6개월 뒤에 시작된다. 그는 열차 안에서 남의 아기를 훔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사뭇 가까이 마을에 강제로 끌어들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을 치료하면서 의사의 소명을 실천하다가, 어느 날 마리아 레갈라다의 맹장염을 치료해주고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 이그나시오 조각상에서 우연히 숨겨져 있던 금화와 은화를 발견한다. 갑자기 물욕에 눈이 먼 그는 사람들을 치료해줄 때마다 성자 조각상을 요구했다. 마리아 레갈라다와 육체적 관계를 맺은 뒤, 어느 날 새벽 금은보화를 찾기 위해 모든 성자 조각상들을 모두 토막 낸 뒤 재물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사라졌다.

결국 그는 의술을 통해서 인간을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그러한 역할을 자처했지만, 재물에 눈이 멀어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마치 제2장의 제목처럼, 타락한 ‘의사 그링고’에겐 성자 조각상은 목재에 불과했고, 인간은 살에 불과했다. 그의 행위는 성자에게 신성을 박탈한 것이며, 인간에게 인간성을 박탈한 것

에 다름 아니다. 그의 이야기는 작품 첫 장에서 가스빠르 모라가 평소에 사람들을 박애정신으로 대하여 결국 그의 조각상이 신성을 획득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신과 인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미겔 베라나 민요섭과 공통점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동팔 & 그리스도발 & 가스빠르 모라

미겔 베라나 민요섭은 갈등 속에서 행동을 주저하는 인물이라면, 조동팔과 그리스도발, 가스빠르 모라는 타인을 위해 희생적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조동팔은 자신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 집을 털고,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을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보잘 것 없어 안타까워하던 중 김동욱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노동과 사회의 동정심에 의지하던 방식을 버리고 마침내 가진 자들의 돈을 탈취하여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준다. 심지어는 부당하게 돈을 번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 구원을 베푼다. 그에게 있어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 된다. 그가 추구하는 신은 ‘이성의 신’이요, ‘지혜의 신’이다.

선악의 관념이나 가치판단에 관여하지 않는 신, 먼저 있는 존재를 뒤에 온 말씀으로 속박하지 않는 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시인하는 신, 천국이나 지옥으로 땅위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신, 복종과 경배를 원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신, 우리의 지혜와 이성을 신뢰하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하는 신(264).

이처럼 그는 민요섭의 생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요섭은 조동팔의 행동이 점점 사회 질서로부터 극단적으로 이탈하자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조동팔이 민요섭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자, 민요섭은 마침내 자기 생각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민요섭의 자기

부정에 조동팔은 민요섭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취한다. 조동팔은 음독자살하면서 자신의 신은 영원하리라고 말하지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가스빠르 모라는 악기를 제작하면서 버는 돈을 이웃에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아름다운 기타소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동팔과 다르다.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준 기타 소리는 순수하고 희생적인 가스빠르의 영혼이 전하는 복음이었다. 가스빠르가 문둥병이 걸려 산 속으로 들어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기타 소리를 들으러 골짜기로 가곤 하였고, 그 기타 소리는 그가 죽은 뒤에도 계속 사람들에게 들려왔다. 사람들의 영혼 속에 계속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가스빠르 모라나 끄리스토팔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마치 예수가 그랬듯이,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동시에 민중들에게는 부활과 구원의 희망을 심어준다. 후안 마누엘 마르코스와 마르틴 리엔하르드의 연구에 따르면 로아 바스포스의 소설에서 이러한 선지자들의 등장은 “카라이스모(karaísmo)”와 관계가 깊다. 원주민 사회에서 카라이(karai)들은 일종의 마법사들이었는데, 그들은 말을 통해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고, 이 지상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Juan Manuel Marcos, 1988: 201-219).

가스빠르 모라, 끄리스토팔 하라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사람의 아들’로 ‘신의 아들’인 예수의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를 일시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그러한 희생적 인물들이 등장하는 지도 모른다. 까를로스 바틸라나에 따르면, 작품의 제사(題辭)로 인용된 <과라니인들이 부르는 망자의 노래>에서 잘 드러나듯이, 과라니인들은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에 의해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며, 인간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Carlos Battilana, 1979: 12).

이와 같이 예수와 같은 희생적 행동을 실천하는 이 인물들과는 달리, 아하스 페르츠는 야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극소수에게만 가능하기에 결국 대부분의 인간에겐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짐, 영원히 헤어날 길 없는

죄책감과 절망의 원인이 될 따름”(202-203)이라고 항변한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지혜와 선한 의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라고 요구한다. 만약 인간을 구원하고 싶다면 기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그에 대해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거짓 예언자나 사악한 지혜의 입을 빌어 수없이 반복된 사탄의 주장일 따름이오. [...] 공의(公義)로 떠를 삼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인간의 영적인 발전을 부정하려드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오. 그래 당신의 자장에는 저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卑下)와 불신 이상 무엇이 있소? 또한 저들의 존재를 무의미와 맹목 속에 방치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사탄의 길을 열고 그것을 고르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오?”(203)

그리고 예수가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을 일으킨 뒤 아하스 페르츠는 예수에게 가서 “오늘 당신은 저들에게 기적과 빵을 한꺼번에 주시었소. 이제 저들은 아무도 당신이 야훼의 아들임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의 권능이 두려워서라도 인간은 아무도 말씀에 거역하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 지름길을 두고 굳이 둘러가겠단 말이요?”(207)라고 하면서 진정 존경의 태도와 함께 기적을 통해서 이 지상에 야훼의 선(善)을 완성하라고 촉구한다. 그러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오. [...] 결코 기적(奇蹟)으로 인간의 뜻을 강제하지는 않겠소. 내 아버지는 질투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권능에 억눌린 껍질만의 경배와 순종을 원하시지도 않소. [...] 기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보다는 말씀의 참되고 옳음을 선택할 줄 아는 영혼을 내 아버지는 더욱 어여삐 여기실 것이오.”(207)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는 그 아래 와 있는 아하스 페르츠를 발견한다. 예수는 자신이 재림의 기적을 보여 ‘사람의 아들’이자 동시에 ‘신의 아들’임을 보여주어도 아하스 페르츠 같은 자들에 의해

자신에 대한 불신과 왜곡은 수천 년 지속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아버지 저도 저렇게 남고 싶습니다. 사흘 후의 제가 다시 살아나 얼마간 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들 수천 년 땅 위를 떠돌며 저들에게 수군댈 저 사람을 어찌시렵니까?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또 하나의 십자가가 저를 기다려 다시 한 번 제가 올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다시 원합니다. 제가 꼭 받아야 할 것이 아니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218)

결국 아하스 페르츠와 같이 기적을 보여주길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사람들을 신의 권능으로 구원해주시기보다는 세월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신성을 구현하길 요구하고 있다. 결국 그것은 가스빠르 모라나 끄리스또발 하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예수는 바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기적과 권능으로 구원해줄 구세주를 갈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이웃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자들이다. 그렇다고 정의를 세운다는 미명하에 조동팔처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구세주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들의 희생적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기적에 대한 이런 태도는 최전선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나기 전날 밤, 끄리스또발 하라와 살루이의 말에 압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끄리스또발, 당신은 기적을 믿나요?”

“기적?”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 말이에요. 하느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힘일지도 몰라요.”

“모르겠어. 말로만 지껄이는 것을 난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니까. 지금 난 하나의 임무가 있고, 난

그것을 완수할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이해하는 거야(Roa Bastos, 1994: 314).

III. 결론

이문열은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하느님과 예수에 대한 개인적 관심사를 펼쳐나갔다. 작품의 후반부로 가면서 민요섭이 기존 기독교로 회귀하고, 조동팔이 자살하고, 아하스 페르츠가 정신적 혼란 속에서 끝없이 방랑하게 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드러냈다. 물론 민요섭이 마지막에 야훼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선에 대한 의지나 이타적 희생정신에 대한 믿음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지닌 신성(神性)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아들’인 예수보다는 ‘신의 아들’인 예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말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문열의 작품에서는 애초부터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주체로 민중 스스로를 상정해 본 것이 아니라 아하스 페르츠 같은 선지자나 민요섭과 조동팔 같은 지식인을 상정했다. 작품 내내 민중은 다만 구원의 수동적 대상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반면에, 로아 바스또스 작품에서는 파라과이의 민중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로아 바스또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민중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구원의 희망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1966년 10월 《알코르紙》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머나먼 곳에 있는 조국은 나에게 이 소설의 주제를 던져주었다. [...] 우리 민족의 핵심이 되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민중의 저항 의식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역사의 부침을 반복하여 보여주는 민중의 의지를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의 주제가

떠오른 것이다. 즉 『사람의 아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장은 물리적인 육신의 소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인간의 저항의 변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로아 바스토스, 1994: 405).

이처럼 로아 바스토스는 민중의 의지와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97년 자기 나이 80세 되던 해, 아구스틴 바르보사 재단에서 마련한 자리에서 《라마가紙》와 가진 인터뷰에서 만약 자신이 망명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을 쓸 수 없었다면 아르튀르 랭보처럼 무장 반란군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¹³⁾ 또한 마카리오 영감의 입을 통하여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 다음 세대에도 지속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 모든 사람들의 시대가 되어야 해. [...]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나는 땅 속에서 녹아 없어질 거야. 너희들이 나서야 해.”(Roa Bastos, 1994: 52)

이런 맥락에서 작가를 이해할 때,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겔 베라의 원고를 내전이 일어나려는 그 시기에 출판하려는 로사 몬존의 발언도 바로 작가의 발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된다. 미겔 베라의 원고, 즉 이 『사람의 아들』을 통해 억압받는 자들에게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의 의미를 전해주고자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예수가 전지전능한 ‘신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제도화된 기독교의 주장을 거부하고, 예수는 ‘사람의 아들’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소설의 첫 장에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다. 이따빠 마을 사람들이 가스파르 모라의 조각상을 교회에 들여 놓으려 할 때 교회가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 이미 작가의 반교권적 태도는 잘 드러났다고 보인다.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의 민중에게 제도로서의 기독교가 현실적으로 전혀 구원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소설 전체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

13) Augusto Roa Bastos: “De no ser escritor, quizá hubiera sido contrabandista de armas, como Rimbaud.” *La Muga*. 2008년 2월 26일 검색. <http://www.lamaga.com.ar/www/varios/imprimir>

메리카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작품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

어쩌면 예수가 인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은 이따빠 사람들의 단순한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을 수도 있다.

예수가 신이라면 당연히 죽을 수 없다. 만약 예수가 인간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흘린 피는 다 부질없었다. 구원받기는 커녕 인류가 처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니 말이다.

어쩌면 그 수수께끼는 바로 이따빠 언덕 위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이따빠 사람들의 영혼에 그들처럼 누더기를 걸친 구원자에 대한 기이한 신앙을 배태하게 한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예수의 삶은 태초부터 평생 조롱당하고 놀림 받다 죽은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바로 이따빠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 없었으니 말이다. 그 자체로 신앙의 전복을 의미하는 믿음이었고, 끝임 없는 항거의 노력이었다(Roa Bastos, 1994: 24).

가스빠르 모라와 까시아노 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 꼬리스또발은 인간들에 의해 고통 받는 인간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다. 더 나아가 희망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이자, 동시에 반역의 상징이기도 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인간이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에서 그리스도는 가스빠르 모라나 꼬리스또발 하라같은 인간으로 부활하였다.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의 의지와 사랑과 희생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꼬리스또발 하라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스빠르 모라의 조각상이 있는 이따빠 언덕은 ‘신의 길’(Tupá-Rapé)이 아니라, ‘사람의 길’(Kuimbaé-Rapé)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마까리오 영감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실존주의 소설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로아 바스또스, 아우구스또. 1994. 『사람의 아들』. 남진희 옮김. 서울: 동숭동.
이문열. 1987. 『사람의 아들』. 서울: 민음사.
A. Fox, Arturo. 1998. *Latinoamericana: presente y pasado*. N.J.: Prentice Hall. 147
Battilana, Carlos. 1979. *Reflexiones sobre Hijo de hombre de Augusto Roa Bastos*.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De Mora, Carmen. 1994. “Hijo de hombre: de la historia al mito.” *Hijo de hombre*.
Madrid: Anaya & Mario Muchnik.
Lienhard, Martín. 1991. *La voz y su huella*. Hanover: Ediciones del Norte.
López, Trinidad Barrera. 1990. “Augusto Roa Bastos: la ejemplaridad de la
escritura.” *Augusto Roa Bastos, Premio de Literatura en la lengua
castellana ‘Miguel de Cervantes’ 1989*. Barcelona: Editorial Anthropos.
Marcos, Juan Manuel. 1988. “Las voces del karái.” en Fernando Burgos(ed). *Las
voces del karái: Estudios sobre Augusto Ros Bastos*. Madrid: Edelsa.
Roa Bastos, Augusto. 1994. *Hijo de hombre*. Madrid: Anaya & Mario Muchnik.
———. 1990. “Acordar la palabra con el sentido del pensamiento. Lo más difícil
del mundo.” *Augusto Roa Bastos, Premio de Literatura en la lengua
castellana ‘Miguel de Cervantes’ 1989*. Barcelona: Editorial Anthropos.
Vila Barnes, Gladys. 1984. *Significado y coherencia del universo narrativo de
Augusto Roa Bastos*. Madrid: Editorial Orígenes.
Roa Bastos, Augusto. “De no ser escritor, quizá hubiera sido contrabandista de armas,
como Rimbaud.” en *La Maga*. <http://www.lamaga.com.ar/www/varios/imprimir>
Lustig, Wolf. “Cristo y los hombres en la novela hispanoamericana del siglo XX.” 2
008년 2월 26일 검색. [http://www.romanistik.uni-mainz.de/hisp/roa/Asuncion.h
tm](http://www.romanistik.uni-mainz.de/hisp/roa/Asuncion.htm)

성명: 김창민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이메일: chang107@snu.ac.kr

논문투고일: 2008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08년 3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4월 1일